

6·25전쟁 시 야전훈련사령부(FTC)의 창설과 역할*

유성종**

1. 머리말
2. 전선의 소강과 한국군의 발전을 위한 고민
3. 야전훈련사령부의 창설과 운용
4.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 프로그램
5.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 결과
6. 결론 : 야전훈련사령부가 한국군에 미친 영향

1. 머리말

야전훈련사령부(Field Training Commands, 약칭 FTC)¹⁾는

* 이 논문은 저자의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석사학위 논문인 “6·25전쟁 시 미국의 전략과 야전훈련사령부에 대한 연구”중 야전훈련사령부에 관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제12보병사단 수색대대 중대장; 이메일 : heatice@army.mil(인트라넷), heatice@naver.com(인터넷); 논문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심사를 해주신 네 명의 심사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 야전훈련사령부의 영문 명칭은 Field Training Commands(약어 : FTC)이다. 한글 명은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과 저서를 참고하였다. 나중남 교수는 야전훈련사령부를

6·25전쟁 중 한국군 사단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51년 8월에 당시 미 8군사령관이었던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은 신속하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결정하고 전쟁에 참여하였다. 미국은 전쟁초기부터 소련과의 확전을 피한다는 전략적 목표에 기초하며 제한전을 수행하였다. 이 전쟁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대결이 아닌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열전이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서 성공하며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파죽지세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그해 10월에 중국군²⁾이 참전하면서 전황이 급반전되었고, 미국은 불가피하게 전략을 수정해야만 하였다. 결국 1951년 1월에 미국은 정전협정을 통한 전쟁의

자신의 논문에서 Field Training Center로 표현하였으며, 야외훈련소로 설명하였다. 이 두 가지 의견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필자가 이와 관련된 다수의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Field Training Command와 Field Training Center가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미 8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에 발송된 보고서의 발송명이 각각 Field Training Command #1, Field Training Command #2, Field Training Command #3, Field Training Command #4로 사용되었음을 볼 때, 필자는 Field Training Command가 실제로 한국군의 훈련을 담당할 부서라고 생각되고 Field Training Center는 단순히 훈련장 수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952년 7월에 3개의 Field Training Command가 각 군단으로 지휘통제가 이관되고, Field Training Command #2가 Unit Training Center로 전환되면서 Field Training Command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았다. 이후에는 Field Training Center, Unit Training Center라는 명칭이 각종 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밴플리트가 1951년 8월에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키기 위해 설립한 Field Training Command는 백선엽 장군의 호칭대로 야전훈련사령부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Field Training Command를 야전훈련사령부로 지칭할 것이며, 4개의 야전훈련사령부를 각각 제1, 2, 3, 4야전훈련사령부로 지칭할 것이다.; 백선엽, 『군과 나』 (서울 : 시대정신, 2009); 백선엽,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 (서울 : 지구촌, 1999); 나중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군사』 제63호, 2007; RG 338, US National Archives; RG 554, US National Archives에 수록된 야전훈련사령부 관련 각종 보고서 등을 참조.

- 2) 이 논문에서는 6·25전쟁에 참여한 중공군을 지칭하는 용어로 중국군을 사용할 것이다. 1950년 10월 19일 한반도에 투입된 병력은 중국군으로 지칭할 것이며, 이후에 전선에서 공세를 진행하는 중국과 북한의 연합군은 공산군으로 지칭할 것이다.

종결을 전쟁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군의 작전도 적과 대치한 전선에서 적에게 최대한 피해를 가하며 적을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과 대치한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유엔군의 전선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한국군 사단은 공산군의 공세를 제대로 견뎌내지 못하고 전선에서 이탈하였으며, 때때로 전선 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³⁾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군부는 한국군을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였다. 이 중 한국군 사단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바로 야전훈련사령부의 설립이었다.⁴⁾

전쟁 중 한국군의 질적 혹은 양적인 발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한국군의 교육 훈련제도, 병력 충원, 개인 훈련, 화력 증강 등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켰던 야전 훈련사령부와 같은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미진한 편이었다.⁵⁾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군의 발전에 관한 연구에서 발생하는

3)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서울 : 집문당, 2000), pp.922~925.

4) 야전훈련사령부 창설이전에 미국이 한국군의 증강을 결정하게된 전략적인 측면과 작전적 상황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인 “6·25전쟁 시 미국의 전략과 야전훈련사령부에 대한 연구”(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의 제2장과 제3장을 참조할 것.

5) 전쟁 중 한국군의 발전 및 증강에 대한 연구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할 것. 나종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군사』 제63호; 온창일, “6·25전쟁과 한국군의 팽창”, 『한국과 6·25전쟁』 (현대한국학연구소, 2000); 박일송, “The Dragon From The Stream : The ROK Army transition and the Korean War, 1950-1953”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박일송, “한국전쟁시 육군의 교육 및 훈련체계: 1950. 6~1951. 8”, 『학예지』 제3집; 박일송, “전쟁중 국군의 충원과 교육훈련”,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2』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이병태, “국군의 장교충원과정”,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1』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Bryan Robert Gibby, “Fighting in A Korean War : The American Advisory Missions From 1946-9153”(오하이오 주립대학 박사학위논문, 2004) 등을 참조.

간극을 채우기 위하여 야전훈련사령부를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연구방법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1차 사료 및 2차 자료를 심층깊게 검토하는 문헌고찰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하여 야전훈련사령부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주한미군사고문단과 관련된 사료와 각종 보고서들이 주로 활용되었다.⁶⁾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군사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6·25전쟁 중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켰던 야전훈련사령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둘째, 한국군의 발전에서 야전훈련사령부가 어떠한 기여를 하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6) 이 논문에서 분석된 사료들은 다음과 같다. RG 218 : Records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1941-1978, RG 554 :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1957, RG 338 :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1917-1993; RG 319 :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6. 또한 R.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5; K. W. Myers,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Part IV - KMAG's Wartime Experiences 11 July 1951 to 27 July 1953*, 1951 등의 전사 류도 참조했다.

2. 전선의 소강과 한국군의 발전을 위한 고민

1951년 7월경 유엔군이 캔자스선과 와이오밍선을 강화하면서 전선은 안정되어 갔다. 밴플리트는 공산군의 차후 예상되는 공격 및 행동에 대한 대비를 전 지휘관들에게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각 부대의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부대 훈련을 강화하라고 예하 부대에 지시하였다. 이것은 1951년 7월 6일에 있었던 지휘관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이었다. 밴플리트는 정전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각 부대들이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전선에서 진행되는 훈련이 최고의 훈련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현재와 같이 비가 오는 시기에는 방어를 위한 훈련이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대대, 중대, 소대, 분대와 같은 부대단위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다음날 밴플리트는 이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각 부대에게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명시하였다: “전술적 효율성 증대, 물자 효율성 증대, 적의 공세에 반격할 수 있는 준비 완비, 부대와 개인의 사기양양”. 이 명령은 휴전협상기간 중 어떠한 훈련이 주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다.⁷⁾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밴플리트가 전선이 소강상태로 전환되자마자 차후에 있을 전장 상황에 대비한 각종 교육 훈련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 훈련을 통해 부대가 계속 활동적이어야 추가적인 전투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그는 대부분의 훈련이 전선 근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부대 단위 훈련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었다. 즉 밴플리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부대들이 훈련을 통하여 전장에서 즉시

7) “Command report, Section I : Narrative, July, 1951”, RG 338. HQ, EUSAK,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Entry 34407, Box 64, pp.48~50.

운용될 수 있도록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었다.

미군에 대한 조치를 마친 후 밴플리트는 1951년 7월 16일 오후에 대구에 위치한 한국군 육군본부 및 주한미군사고문단 본부를 방문하여 한국군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는 한국군의 조직 및 현재 보급 상태 등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한국군의 훈련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이때 주한미군사고문단이 광주지역에 한국군 사단 훈련을 위한 본부를 설립하고 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3개의 훈련 센터를 조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밴플리트는 이 계획에 반대하였다. 그는 부대 지휘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 부대의 훈련을 매일 관찰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⁸⁾ 밴플리트와 한국 육군참모총장과의 대화에서 그가 한국군의 교육 훈련 강화와 증강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⁹⁾

이종찬 장군! 나는 여기에 온지 3개월 밖에 안 되었고 라이언 장군과 참페니는 겨우 3일 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일류의 군대(top-flight Army)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군의 발전이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서울과 한국군의 훈련소가 완전히 파괴되고 난 이후 지난 12개월간 교육기관을 만들어내었으며 군대를 발전시켰고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당신과 나는 앞으로 12개월 동안에도 분명히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육군의 성공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상호간의 성공을 위하여 한국군을 열심히 도울 것입니다.

8) *ibid.*, p.63.

9) *ibid.*, p.64.

회담 직후 밴플리트는 제주도로 이동하여 한국의 신병훈련소(Replacement Training Center)를 방문하였으며 세세하게 각 분야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떠나면서 한국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라이언 장군에게 지시하였다.¹⁰⁾

앞서 살펴본 대로 1951년 7월 전선이 소강상태가 되자 유엔군은 지금까지 점령한 지역을 강화하는 노력과 차후 공산군의 공세에 대비하는 노력을 함께 추진하였다. 점령지를 강화하기 위해 캔자스선에 진지를 구축하였고 와이오밍선에는 급편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밴플리트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감독하였다. 밴플리트는 캔자스선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그는 공세적 정찰활동을 강화하여 적의 행동을 조기에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부대에 차후 공산군의 공세에 대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한국군과 관련된 증강과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군은 그동안 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밴플리트가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 목표는 더 이상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 군사작전의 목표는 정전 협정 체결을 위한 시간을 버는 것과 중국의 제한적인 공격에 대해 대비를 하고 약해진 부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훈련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부대의 상태를 재점검하였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었으며 밴플리트의 교육훈련 강화에 대한 구상은 이 새로운 전쟁을 감내하는데 있어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¹¹⁾

이 당시 전선에 배치된 유엔군 병력 절반 정도는 한국인이었다. 이는 한국군 사단이 공산군과 대치한 전선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10) *ibid.*, pp.64~65.

11) Bryan Robert Gibby, "Fighting in A Korean War : The American Advisory Missions From 1946-1953"(오하이오 주립대학 박사학위논문, 2004), p.186.

있음을 의미한다. 1951년 7월에 전선에는 총 13개의 유엔군 사단이 배치되었는데 이 중 한국군 사단은 제3사단, 제11사단, 수도사단, 제8사단, 제7사단, 제6사단, 제2사단, 제1사단으로 총 8개였다. 나머지는 미군 및 영연방군으로 13개의 전선 담당 부대 중 절반이 넘는 8개의 부대가 한국군이었다.¹²⁾ 유엔군의 전선 유지에 있어 한국군이 중요하다는 것은 전선 상에 한국군 부대가 많다는 사실을 통하여 확인해볼 수 있다.

1951년 초에 미국의 지휘관들이 전선의 경험을 통해 한국군의 전투효율성 및 문제점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밴플리트를 포함한 한국과 미국의 군 관계자들은 한국군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들은 한국군이 인력, 장비, 물자, 전투효율성 등과 같은 거의 모든 분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들은 1951년에 있었던 한국군 제6사단의 패배와 한국군 제3군단의 붕괴를 중요한 사례로 거론하였다. 먼저 4월 22일에 있었던 한국군 제6사단의 패배와 관련하여 무초 대사, 미 8군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이승만 대통령이 일련의 회담을 진행하였고 이들은 한국군에게 현재 필요한 것이 인력이나 장비가 아니라 지휘력(leadership)과 훈련(training)이라는 결론을 내렸다.¹³⁾

리지웨이는 한국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장교단의 리더십을 지적하였다. 이것이 물론 한국군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은 분명하였으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많은 시간을 요하였다. 즉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달성되기는 어려웠다. 반면에 밴플리트는 리지웨이와 다른 방향에서 한국군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국군이 1951년에 있었던 몇 차례 전투를 경험하면서 자신감 및 사기가

12) "Command report, Section I : Narrative, August, 1951", RG 338. HQ, EUSAK,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Entry 34407, Box 64., pp.9~10.

13) R.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C in peace and war*,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5, p.170.

많이 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이 판단은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작성한 한국군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었다. 밴플리트는 이러한 자신감과 사기를 먼저 회복시키고 강력한 교육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전투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처방이라고 판단하였다.¹⁴⁾

리지웨이가 한국군의 간부단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면 밴플리트는 현재 전선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이 둘의 해결책은 모두 타당했기 때문에 한국군의 발전은 간부단에 대한 교육과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상황을 평가한 각종 보고서들을 종합해 보면 1951년 중반에 미군 지휘부가 인식한 한국군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한국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한 간부의 부족이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한국군의 군사훈련 및 교육체계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주한 미군의 도움으로 1950년 초에야 교육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우수한 간부를 배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였다.

둘째, 보충병들의 문제이다. 전쟁이 발발하고 1년 동안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수의 신병들이 모집되었고 이들은 매우 짧은 기간의 훈련을 거친 후에 각 부대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전투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초적인 교육은 전장에서 효율성을 발휘하기에 많이 부족하였다.

14) 나중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1953”, 『군사』 제63호, pp.222~224.

마지막으로 한국군 사단의 문제이다. 전장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한국군 사단의 전투효율성은 전선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하였다. 전선의 취약한 부분이 돌파되는 것은 양측에 있는 부대의 측방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선의 거의 모든 부대가 비슷한 수준의 전투효율성 및 전투력을 지녀야 하였다. 그러나 1951년 초 전장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군 사단의 전투력 및 효율성은 유엔군 다른 사단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위험한 상황을 수차례 초래하였다. 전투효율성이 부족한 한국군 부대는 유엔군의 군단장 및 사단장들에게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군 사단의 전투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¹⁵⁾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밴플리트는 한국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주한미군사고문단이 한국군의 교육 훈련을 향상시키는 것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 교육훈련 관련 분야에 대한 책임이 확대되었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임무가 가중될 수도 있었지만 1951년 봄부터 미 8군이 한국군의 작전활동에 관한 많은 부분을 떠맡으면서 주한미군사고문단이 가지고 있던 작전 분야에 대한 임무가 축소되었고 대신에 교육훈련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¹⁶⁾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군 보충병에 대한 훈련 강화 및 교육훈련체계 재구성, 둘째, 한국군 교육 훈련 기관의 지휘통제 일원화, 셋째, 리더십 프로그램의 강화, 넷째, 미 병과학교에서 한국군 장교에 대한 교육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한국군 보병사단에 대한 부대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었다.¹⁷⁾

15) Myers(1958), p.131.

16) *ibid.*, p.120.

17) *ibid.*, p.121.

이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 간부 및 보충병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여 자질있는 간부를 육성하고 보충병들이 기본적인 전기를 익힌 후 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한미군 사고문단은 간부 교육 기간을 16주에서 24주로 연장하였으며, 신병 훈련소를 확충하고 교육시간도 늘렸다.¹⁸⁾ 이는 한국군의 문제점 중 장교 및 보충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었으며 앞서 논의된 세 가지 문제점 중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와 함께 밴플리트는 한국군 사단의 전투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밴플리트는 1951년 7월에 있었던 한국군 참모총장,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등과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이 광주에 한국군 훈련을 위한 별도의 훈련소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밴플리트는 한국군 사단에 대한 훈련이 전선과 근거리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¹⁹⁾ 그리고 그는 한국군 사단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상된

‘9주짜리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회복기(재보급 및 재무장, 1주)와 훈련기(개인훈련/부대훈련, 8주)로 구성되었다.²⁰⁾

밴플리트는 한국군의 현재 사단들이 가진 전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야전훈련사령부라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 진행되었다. 밴플리트는 미 9군단의 부군단장이었던 크로스 준장(Thomas J. Cross)을 야전훈련

18) 박일송, “전쟁 중 국군의 충원과 교육훈련”,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2』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41~46.

19) “Command report, Section I : Narrative, July, 1951”, RG 338. HQ, EUSAK,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Entry 34407, Box 64, pp.48~50.

20) K. W. Myers,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Part IV - KMAG's Wartime Experiences 11 July 1951 to 27 July 1953*, 1958, p.135.

사령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한국군 사단에 대한 훈련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²¹⁾

3. 야전훈련사령부의 창설과 운용

밴플리트의 지시로 만들어진 야전훈련사령부는 전투효율성이 낮아진 한국군 사단을 위한 특별 훈련 기관이었다. 전쟁이 발발하고 약 1년 동안 많은 한국군 부대들이 소멸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군 부대들은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거의 모든 부대들이 적절한 훈련을 거치지 못한 상태였다. 지속되는 전투로 인하여 모든 한국군 사단들이 재보급 및 재훈련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어떤 한국군 대대는 그 구성원이 장교와 부사관 몇 명 그리고 훈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병사 수십 명 수준으로 구성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한국군이 1년의 전쟁을 거치면서 얼마나 열악한 수준으로 저하되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한국군 사단들은 전장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이들과 함께 작전을 하던 유엔군에게 커다란 부담이었다.²²⁾

1951년 7월이 되면서 유엔군이 38도선 일대의 전선을 점령하였고 밴플리트는 전선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산군의 공세도 잦아들었기 때문에 1951년 여름의 전선은 소강상태였다. 밴플리트는 이 시기를 활용하여 추후에 있을 공산군의 공세를 대비하도록 유엔군 휘하의 모든 부대에 지시하였다. 특히 그는 모든 부대들이 공산군과의 전투에서 경험을 토대로 향후 이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21) *ibid.*, p.133.

22) *ibid.*, p.131.

반격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는 한국군의 사단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 하라고 지시하였다. 밴플리트는 한국군의 모든 사단이 동일한 부대 훈련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전투효율성이 향상된 부대로 거듭나 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주한미군사교문단이 주도하여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키기 위한 야전훈련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야전훈련사령부가 48시간 내에 한국군 사단이 전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선 근처에 창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부대에 대한 관리가 향후 이들을 사용하게 될 부대의 지휘관에 의해 훈련이 밀접하게 감독되고 관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밴플리트는 전방 군단의 후방 지역 내에 야전훈련사령부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군 사단의 재보급 및 훈련 단계를 감독하기 위한 인원을 주한미군사교문단에서 파견하였다.²³⁾

밴플리트는 당시 미 9군단 부군단장이었던 크로스 장군을 야전훈련사령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매우 열정적인 인물로서 한국군 사단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다. 그는 야전훈련사령부의 요원들을 꾸준히 자극하고 격려하였고 훈련 프로그램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였다. 그는 야전훈련사령부가 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개입하였다. 야전훈련사령부 요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군을 위한 훈련/강의 계획, 교범 등의 번역서가 탄생하였다. 또한 미군 사단에서 파견된 특별 검열단이 훈련 준비 상태 및 진행 상태를 감독하고 전장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파견되기도 하였다.²⁴⁾

야전훈련사령부는 각 군단 내에 위치한 한국군 훈련을 위한 훈련

23) *ibid.*, p.132.

24) *ibid.*, pp.134~135.

시설(Field Training Center)에서 진행되는 훈련을 감독하고 총괄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이 야전훈련사령부에서 훈련받는 모든 한국군 사단과 보충병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²⁵⁾ 1951년 8월 1일에 야전훈련사령부의 창설에 대한 명령이 하달되었으며, 8월 4일에 이를 창설하기 위해 임시본부가 설립되었다. 이어서 8월 9일에 제1야전훈련사령부를 설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어 부평리에 창설되었고 창설식이 8월 13일에 진행되었다. 이어서 8월 18일부터 한국군 제9사단이 최초의 야전훈련사령부 훈련 대상이 되었다. 야전훈련사령부는 시작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정부 및 군 관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초기 방문자들 중에 이승만 대통령과 밴플리트 장군을 비롯하여 다수의 미국 및 한국 장성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모두 한국군 사단이 전장에서 부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²⁶⁾

밴플리트는 훈련과정을 지켜보면서 야전훈련사령부가 성공적으로 한국군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야전훈련사령부를 확장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 미 제1군단, 한국군 제1군단의 후방지역에 각각 야전훈련사령부가 창설되어 주한미군사고문단은 추가적으로 3개의 야전훈련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야전훈련사령부의 본부가 제2야전훈련사령부로 이전하게 되었다.²⁷⁾

25) "Section I, Tab A, Mission and Background", RG 554 :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KMAG), 8202nd Army Unit, AG section, Command Reports,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26) "General Orders No. 16 : Activation of Field Training Command. 1951. 08. 01", 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6-53, BOX 37, AG No. 300.4, File : Operations Orders and Field Messages; "General Orders No. 18 : Annoucement of Opening Field Training Command. 1951. 08. 09", 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6-53, BOX 37, AG No. 300.4, File : Operations Orders and Field Messages; Myers(1958), p.133.

27) Myers(1958), p.136.

〈표 1〉 야전훈련사령부 현황

명칭	FTC #1 (제1야전훈련사령부)	FTC #2 (제2야전훈련사령부)	FTC #3 (제3야전훈련사령부)	FTC #4 (제4야전훈련사령부)
지역	부평리	양양	양구	사창리
지역담당 군단	미 제1군단	한 제1군단	미 제10군단	미 제9군단

※ 출처 : 마이어스의 자료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

위의 표는 1951년 10월 4일부로 창설된 총 4개의 야전훈련사령부의 위치와 어느 군단 지역에 배치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훈련 중이던 한국군 사단이 유사 시에 48시간 내로 전선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밴플리트의 의도에 따라 야전훈련사령부는 전선 인근지역에 설치되었다.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군의 모든 사단이 야전훈련사령부가 제공하는 한국군 사단 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하였다. 야전훈련사령부에서 훈련을 받은 한국군 사단들은 전선에 재투입되었으며 기존보다 향상된 능력을 발휘하였다. 백선엽 장군은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야전훈련사령부에서 받았던 훈련이 오늘날 육군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기술하기도 하였다.²⁸⁾

1952년 6월을 마지막으로 수도사단을 제외한 9개의 한국군 사단이 야전훈련사령부에서 훈련을 종료하였다. 밴플리트는 야전훈련사령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군 사단에 대한 훈련 임무를 중지하고 이들을 각 군단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1야전훈련사령부, 제3야전훈련사령부, 제4야전훈련사령부의 지휘권이 각 군단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구(미 제10군단 지역)에 있던 제3야전훈련사령부가 사창리(미 제9군단 지역)의 제4야전훈련사령부와 통합되었으며 그 명칭이 제4야전훈련사령부에서 제5야전훈련사령부로 변경되었다. 당시 전체 야전훈련사령부의 통제 역할을

28) 백선엽,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 (서울 : 지구촌, 1999), p.209.

하던 제2야전훈련사령부만이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지휘계선 상에 잔류하였다. 제2야전훈련사령부는 부대훈련소(Unit Training Center, 이하 UTC)로 개칭되어 새로운 한국군 부대에 대한 훈련을 지속하였다. 특히 부대훈련소는 이후에도 한국군의 보충병 연대 혹은 새로 만들어지는 부대들에 대한 훈련을 계속하였으며, 1952년 말에는 추가적으로 창설될 한국군 2개 사단에 대한 부대 훈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²⁹⁾

4.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 프로그램

야전훈련사령부는 한국군 사단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소강된 전선이 한국군의 모든 사단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한국군 사단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한국군의 훈련지시-92(Training memorandum-92)³⁰⁾는 한국군 사단에 대한 훈련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야전훈련사령부는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켰다.³¹⁾

한국군 사단에 대한 훈련은 총 9주 동안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주차에는 입소한 한국군 사단이 엄격한 검열을 거친 후 부족한

29) "Section I, Tab A, Mission and Background",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Myers(1958), p.142.

30) 최초로 야전훈련사령부에서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키기 위한 기초문서는 훈련지시-75였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되어 훈련지시-86이 하달되었으며, 향후 훈련지시-92가 최종적으로 하달되었다. 야전훈련사령부에서 훈련받은 한국군 사단들은 이 세 가지 훈련지시에 따라 훈련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단이 훈련지시-92를 기준으로 훈련하였기 때문에 이후 분석은 훈련지시-92를 기초로 한다.

31) Myers(1958), p.139.

병력, 물자, 장비 등에 대한 보충을 진행하여 병력을 회복하고 장비 및 물자의 보급을 완료하였다. 2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개인 및 부대를 대상으로 한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화기조작을 포함한 개인 훈련 및 분대~연대 수준의 부대 훈련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9주차에는 지금까지 진행한 훈련에 대해 검토한 후 연대 및 사단 참모들이 사단급 지휘소 훈련(Command Post Exercise, CPX)을 진행하였다.³²⁾

이 훈련과정은 열악한 상태의 한국군을 회복시킨 다음에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체계적으로 계획된 훈련이 가진 궁극적인 목표는 충분한 보충을 통해 부대를 정비하고 이어서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한국군의 개인 병력 및 부대에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이었다. 보급과 훈련, 그리고 자신감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야전훈련사령부는 “Filler-Training-Confidence”라는 야전훈련사령부 설립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³³⁾

가. 회복기 : 1주차

한국군 사단이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1주 동안 회복(rehabilita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야전훈련사령부는 한국군 사단의 전투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복이 최우선 과제였다.

한국군 사단이 도착하면 철저하고 세부적인 검열이 진행되었다. 이 검열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한국군의 장비 및 물자, 보급품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획득하여

32) *ibid.*, p.141; “Section I, Tab A, Mission and Background”,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33) Myers(1958), p.140.

어떠한 부분을 충당해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이를 토대로 입소한 한국군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결점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군 개개인에게 가장 최상의 상태로 장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주입시키고 장비 유지 상태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넷째, 검열의 과정에서 한국군 사단 소속의 기술병과 장병들에 대한 훈련도 부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³⁴⁾ 한국군 사단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려면 면밀한 검열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야전훈련사령부는 한국군 사단에 대한 검열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 검열은 미군의 선발된 인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검열단에 의해 진행되었다. 미 8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은 충분히 자질을 검증받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검열단 요원으로 차출하였다. 그리고 특정한 기술 병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된 인원들만 검열단으로 선발하였다. 이들은 한국군 사단의 보급과 장비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검열하였으며, 이 분야와 관련된 장교 및 부사관, 병사들의 임무 수행에 대한 검열도 실시하였다.³⁵⁾

먼저 검열단은 검열이 실시되기 24시간 전에 검열분야 및 품목, 대상에 대하여 한국군 사단 군수처에 통지하였다. 이어서 검열단과 검열대상부대 간에 일정이 조율되고 검열이 개시된다. 검열 분야는 공병, 의무, 병참, 병기, 통신 등과 같이 부대가 전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제 분야를 포함하였다. 검열에 대한 결과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사고문단 측이 각각 별도로 제작하였으며 한국군의 보고서는 한국군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되었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보고서는 총 4장이 만들어져서 검열이 끝나고 3일 내로 각 기술병과의 고위 고문관들을 경유하여 주한미군사고문단장에게 발송되었다. 그리고

34) "Section III, Tab A, Inspection Plan",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35) *ibid.*

이 보고서에 미 8군사령부에서 파견된 장교들의 의견이 첨부되었으며 필요한 지휘관 및 참모들의 행동이 종결되면 관련 보고서들이 미 8군사령관에게 보고되었다.³⁶⁾

검열이 완료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이 이루어졌다.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 통제 및 입소한 부대에 대한 지휘권은 주한미군사고문단에 있었지만, 보급 및 군수분야에 대한 책임은 각 군단이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각 군단은 검열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한국군 사단에게 부족한 물자 및 장비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보충해 주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미 8군사령부에 직접 요청하여 충당하였다.³⁷⁾ 회복기 동안 한국군의 보충에 대한 기준은 1951년 1월에 만들어진 한국군 사단 편제표(TO&E, 5-1301)에 기준을 두었으며, 추가적으로 한국 정부가 1951년 2월과 3월에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었다.³⁸⁾

한국군의 모든 사단이 야전훈련사령부 훈련 프로그램의 1주차인 회복기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은 기존의 피해를 회복하고 편제된 능력을 거의 완전히 보충한 사단으로 변모하여 전장으로 복귀함을 의미하고 있었다. 따라서 야전훈련사령부의 첫 번째 주인 회복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36) *ibid.*

37) “Section III, Tab B, Inspection Reports : 1st Division, 20th Regt, and 36th Regt”,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38) 야전훈련사령부에서 최초로 사용된 편제표는 11,770명을 기준으로 한 편제표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이 편제표를 1952년 4월 25일에 수정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군 사단의 병력은 11,770명에서 12,388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편제표를 통해 만들어진 한국군 사단이 향후 한국군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Section II, Tab A, Organization of ROK Division”,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Myers(1954), p.57.

나. 훈련기 : 2~9주차

회복기를 통해 물자와 장비를 보충받은 한국군 사단은 계획된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야전훈련사령부의 한국군 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것이 개인과 부대를 대상으로 한 훈련을 모두 제공하며 또한 사단에 편제된 모든 화기에 대한 조작 및 숙달훈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훈련은 8주 동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³⁹⁾

2주차부터 진행되는 훈련은 다음과 같은 6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보병 소총수를 육성하고 이들이 보병 중대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보병 사단을 구성하는 각 병과의 모든 장병들이 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셋째, 소부대와 팀들이 단위부대(Unit) 혹은 상급부대의 일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넷째, 분대·소대·중대·대대 전술을 구사하는데 있어 전투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협조된 팀워크’를 구축하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단의 전투근무 및 전투지원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 부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여섯째, 모든 제대 지휘관들의 지휘 통솔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⁴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군에게는 다음과 같은 훈련시간이 제공되었다.

39) “Section V, Tab B, Training memorandum 92, Division training program, 24 Nov, 1951”,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40) *ibid.*

〈표 2〉 보병부대 훈련 계획(480시간)

과 제	주 차								계
	1	2	3	4	5	6	7	8	
군인정신과 규율		2	2						4
부대 정보와 교육	1	1	1	1	1	1	1	1	8
위생과 응급조치		3							3
총검술	2		2	2	2				8
개인전투기술		9	7	10					26
분대전술				47					47
소대전술					53				53
중대전술					4	59			63
대대전술							59		59
화기훈련 및 사격	57	45	48						150
지휘관 시간								4	4
FTC 훈련								55	55
계	60	60	60	60	60	60	60	60	480

※ 출처 : Training memorandum 92, Division training program, 24 Nov, 1951, Annex 1.

한국군 사단에게 주어진 훈련시간은 1주일 동안 최소 60시간이었으며, 1일 훈련시간은 10시간이었다. 야외훈련의 경우는 규정된 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었다.⁴¹⁾ 10시간이라는 훈련시간은 밴플리트가 한국군 육군본부를 방문했을 때 한국군 교육훈련시간을 1일 1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었다.⁴²⁾ 규정된 훈련시간 중 30%는 야간 훈련에 소요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 사단에게 총 할당된 훈련시간은 480시간(8주 × 60시간)이었다.⁴³⁾

훈련지시-92는 보병부대를 포함하여 모든 병종 및 제대에 대한 훈련 시간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훈련시간의 상당 부분이 부대 단위 훈련에 할당되었다. 훈련지시-92에 명기된 목적과 훈련시간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밴플리트가 부대 단위의

41) *ibid.*

42) “Command report, Section I : Narrative, July, 1951”, RG 338. HQ, EUSAK,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Entry 34407, Box 64, pp.48~50.

43) “Section V, Tab B, Training memorandum 92, Division training program, 24 Nov, 1951”,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훈련을 상당히 중요시했다는 것이다. 밴플리트는 장교 및 부사관 그리고 병사들을 육성하는 것뿐 아니라 전투 현장에서 각 부대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각 부대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대 훈련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것이 결국에는 전투효율성과 직결되었다. 따라서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각 부대들에게 부대 훈련을 강조한 것은 전투효율성을 강조했던 밴플리트의 당연한 선택이라고 평가해볼 수 있다.

야전훈련사령부는 한국군 사단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 외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였다. 예를 들면 훈련에 참여하는 장병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인력을 순환식으로 운용하여 전체 훈련과정에서 장병들이 열외되는 상황을 최소화시켰다. 또한 한국군 사단이 훈련기간 중에는 경계병과 보조병을 최소화하여 운영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⁴⁴⁾

야전훈련사령부는 사단 예하의 보병부대, 포병대대, 공병대대, 의무대대, 헌병중대, 통신중대, 병참중대, 정비중대, 정보처에 대하여 각자 병과 특성에 맞게 진행되어야 할 훈련을 제공하였다.⁴⁵⁾ 한국군 사단의 참모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고문단은 훈련지시에 명시된 계획에 의거하여 각급부대의 주간 훈련계획을 준비하였다. 훈련 대상 부대의 지휘관 및 지휘자들(분대장 포함)은 계획된 훈련 하루 전에 훈련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야전훈련사령부는 훈련 계획이 작성되면 곧바로 훈련대상부대로 전파하였다.⁴⁶⁾

훈련지시-92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한국군 분대의 기동 및 공산군 사격진지에 대한 집중 공격과 관련된 훈련을 특별하게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한국군 사단이 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특히 취약했던 부분으로서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의미한다.⁴⁷⁾ 따라서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은 한국군 사단의 전반적인 전투 효율성을

44) *ibid.*

45) "Section V, Tab B, Training memorandum 92, Division training program, 24 Nov, 1951, Annex 2-11",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46) "Section V, Tab B, Training memorandum 92, Division training program, 24 Nov, 1951",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47) *ibid.*

향상시키기 위한 것뿐 아니라 사소한 전술적 문제까지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5.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 결과

1951년 8월부터 1952년 6월까지 총 9개의 한국군 사단이 야전훈련사령부에서 훈련을 받았다. 훈련기간도 2주에서 9주로 매우 다양하였기에 모든 사단이 9주의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각 사단들이 최소 2주간의 훈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주에 진행되는 검열과 재보급의 절차는 반드시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야전훈련소를 거친 한국군은 충분히 전투력이 보충되어 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은 야전훈련사령부에서 훈련받은 한국군 사단의 현황이다.

<표 3> 야전훈련사령부를 통과한 한국군 사단(1951.8.~1952.6.)

FTC	부대	훈련시작	훈련종료	주	훈련지시	훈련전 소속부대	훈련후 소속부대
1	제9사단	510813	511006	8	75	미 제1군단	미 제1군단
	제8사단	520217	520315	4	92	TF-백	미 제10군단
	제1사단	520407	520419	2	92	미 제1군단	미 제1군단
2	제3사단	510924	511020	4	86	한 제1군단	미 제10군단
	제5사단	511101	520109	10	86&92	한 제1군단	한 제1군단
	제11사단	520125	520329	9	92	한 제1군단	한 제1군단
	36연(제3사단)	520407	520526	7	92	한 제1군단	
	20연(제5사단)	520407	520418	2	92	한 제1군단	2군수사
3	제7사단	511008	511118	6	86	미 제10군단	미 제10군단
	제3사단	511128	520108	6	86&92	미 제10군단	미 제9군단
	제6사단	520121	520315	8	92	미 제9군단	미 제9군단
4	제2사단	520421	520615	8	92	미 제9군단	

※ 출처 :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Section I, Tab D, Overall Chart를 보고 재구성⁴⁸⁾

48) 제4야전훈련사령부에서는 예비대를 위한 훈련도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군 정규 사단에 대한 훈련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대에 대한 훈련 기록은 표에서 배제하였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군 사단이 야전훈련소에서 훈련한 기간은 부대별로 상이하였으며 그 기간도 2주에서 9주로 편차가 컸다. 하지만 한국군 사단들이 야전훈련사령부를 통해 전투효율성 및 전투력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은 각 사단의 훈련 종결 결과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훈련 종결 결과 보고는 훈련을 실시한 사단과 관련된 매우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인력과 장비, 훈련 진행 중 긍정적인 사항 / 부정적인 사항, 그리고 향후 발전사항 등이 기록되었다.⁴⁹⁾ 제1사단, 제6사단, 제11사단의 훈련 결과는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먼저 한국군 제1사단은 제1야전훈련사령부에서 1952년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2주간 훈련을 받았다. 제1사단은 이 기간 동안에 병력을 완벽하게 보충받았다. 개인 장구류를 포함한 물자와 장비도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정비가 완료되었다. 전투효율성 측면에서 제1사단은 훈련 전 65%에서 훈련 후 약 70%까지 상승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단의 간부단은 훈련기간 내내 야전훈련사령부의 요원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열정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한국군을 위한 교범 및 훈련용 보조자료 등이 부족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⁵⁰⁾

다음으로 한국군 제6사단은 제3야전훈련사령부에서 1952년 1월 21일에서 3월 15일까지 훈련을 받았다. 이 훈련기간 중에 제6사단은 완벽한 인력 보충을 달성하였고 전투효율성은 60%에서 85%까지 향상시켰다. 또한 이들의 사기가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되었다. 제6사단은 특히 정비 분야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49) 현재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훈련 결과 보고는 제1사단, 제6사단, 제11사단 것이 유일하다.

50) “Final report on completion of training, 22 April, 1952”, RG 554 :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KMAG), 8202nd Army Unit, Adjutant General’s Office, Classified General Administrative Decimal Files, 1951-1954, 353 General, 1952.

문제점으로 포병대대의 지휘관과 작전참모의 훈련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그 외의 간부들은 충분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았다. 제6사단은 8주 훈련기간 중에 진행된 각종 부대 훈련 평가를 완벽하게 통과하였으며, 특히 의무대대 및 공병대대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훈련 교범 및 훈련용 물자 등이 부족한 것이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⁵¹⁾

마지막으로 한국군 제11사단은 제2야전훈련사령부에서 1952년 1월 25일에서 3월 29일까지 훈련하였다. 2주차에 병력의 90%가 충원되었으며, 8주차에 10%의 병력이 더 추가되어 훈련이 종료될 때 11사단의 병력은 100% 보충되었다. 장비 및 물자의 준비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훈련 중 정비 상태도 높은 편이었다. 또한 소부대의 전투기술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향상하였는데 훈련 마지막 주차에 시연 단계에서 분대, 소대, 대대의 전투기술은 눈에 띄는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공병대대와 통신중대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훈련 마지막 단계에서도 몇 가지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문제점이 남아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전장에서 경험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⁵²⁾

이 훈련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먼저 한국군 사단들은 야전훈련사령부를 통해서 완벽한 병력 충원을 이룰 수 있었다. 훈련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군 사단은 입소와

51) "Final report on completion of training, 2 April, 1952", RG 554 :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KMAG), 8202nd Army Unit, Adjutant General's Office, Classified General Administrative Decimal Files, 1951-1954, 353 General, 1952.

52) "Final report on completion of training; 11th ROK Division, 15 April, 1952", RG 554 :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KMAG), 8202nd Army Unit, Adjutant General's Office, Classified General Administrative Decimal Files, 1951-1954, 353 General, 1952.

동시에 병력 충원을 받았으며 편제표 대비 약 90% 이상의 병력 충원을 이룰 수 있었다. 이는 부대에게 재정비를 위한 별도의 시간(1주)을 부여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는 성과였다.

다음으로 한국군 사단은 야전훈련사령부에서 제공하는 훈련에 매우 열성적으로 임하였으며 협조적이었다. 야전훈련사령부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주도하여 개발한 한국군 훈련기관으로서 훈련교관 및 훈련을 제공하는 요원들은 모두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요원들이었다. 따라서 언어의 장벽, 병력 통제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훈련 결과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군의 간부단은 자발적으로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에 매우 열정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병력들의 활동을 감독하였다. 이에 대해 훈련 결과에서는 한국군 장교와 야전훈련사령부의 장교들이 매우 협조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상호 협조가 한국군의 훈련 효율성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이 한국군의 전반적인 전투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각 훈련 결과는 한국군 사단에 속한 개별 부대들의 능력이 발전되었으며 어떠한 부대들이 특히 발전된 모습을 보였는지를 설명하였고 동시에 전술적인 취약성까지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이 단순한 허례허식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국군의 전투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분명하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각 야전훈련사령부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한국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범 및 교보재가 부족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탄약도 부족한 요소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항시 거론되었다. 그리고 일부 훈련소에서는 훈련지역 내의 민간인이나 농부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⁵³⁾

이러한 소소한 문제점들을 제외하고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은 매우 잘 진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전투효율성이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한국군의 9개 사단은 야전훈련사령부를 통과하여 전선에 순차적으로 복귀하였다. 이들은 1951년 9월부터 소모적인 고지전에 투입되었으며 유엔군의 일부로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미 8군사령관 밴플리트는 1952년 여름에 한국군 사단의 임무수행을 평가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육군의 놀라운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⁵⁴⁾

6. 결론 : 야전훈련사령부가 한국군에 미친 영향

1951년 8월에 한국군 제9사단이 최초로 야전훈련사령부를 통해 훈련을 받았다. 이어서 모든 한국군 사단이 야전훈련사령부를 통해 훈련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재보급 및 재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⁵⁵⁾ 앞서 밴플리트의 평가대로 야전훈련사령부가 제공하는 훈련이 한국군 사단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은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서 기초적인 성과를 달성한 한국군을 미국 사단과 더욱 유사한 수준까지

53) Myers(1958), pp.142~143.

54) Bryan R. Gibby. *The will to Win : American Military Advisors in Korea, 1946~1953*(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12), pp.177~178.

55) 야전훈련사령부가 각 군단에게 지휘권이 이양된 후에도 한국군 사단에 대한 훈련을 지속하였다. 1953년에는 모든 한국군 사단이 9주의 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 “Section I, Tab D, Overall Chart”,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Myers(1958), Figure 12, pp.142~143.

향상시키기 위해 제2차 훈련(the Second Cycle Training)이 준비되었으며 실제로 진행되었다.⁵⁶⁾

제2차 훈련은 야전훈련사령부가 각 군단으로 소속이 전환된 이후에 시작되었다. 각 군단은 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여 한국군 사단 및 연대에 대한 재훈련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고문단은 제2야전훈련사령부를 부대훈련소로 개칭하여 한국군 보충 부대 및 신설되는 사단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야전훈련사령부가 소속이 전환된 뒤에도 최초의 임무대로 한국군 부대에 대한 훈련지속해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군 사단이 야전훈련사령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전장에 복귀하는 와중에 유엔군은 전장에서 공산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1952년 8월과 9월에 공산군의 공세가 매우 격렬해지기 시작하였으며 10월에 이르러서는 그 강도가 거의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 사단들은 공산군의 강렬한 공세를 견뎌내고 이들을 격퇴하였다. 한국군 사단들은 전장에서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전투 가치(combat-worthy)를 증명하였다. 일각에서는 한국군 사단들이 ‘현대 기계화 전장(modern mechanized warfare)’을 점차적으로 이해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군 사단의 성과에 대하여 미국 언론사들의 호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양적인 증강에 대한 명분이 점점 더 구체화되었으며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한국군 증강 계획도 점차 현실화되어 갔다.⁵⁷⁾

미 육군부는 10월 10일에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 사단의 능력과 안정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카투스(KATUSA) 인력을 확장하고 한국군 사단을 추가적으로 창설하여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을 점차적

56) “Section VII, Proposed Second Cycle Training”, RG 554. Field Training Commands, 1 Jul - 30 Dec 1952.

57) Myers(1958), pp.57~59.

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타당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달하였다.⁵⁸⁾ 이는 미국 정부가 과거부터 고려했던 한국군을 증강시키겠다는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국군 사단들은 1952년 8월 이후에 전장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통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을 독자적으로 충분히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한국군 사단의 능력을 목격한 미국 정부 및 군부는 한국군에게 한반도를 맡길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만약 한국군 사단들이 전장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미국 정부는 한국군 증강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결과적으로 한국군 사단의 전투효율성이 미국 정부가 한국군 증강 계획의 실행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바로 야전훈련사령부였다. 1951년 8월부터 1952년 7월까지 한국군 사단들은 야전훈련사령부를 통해 전투력을 회복하고 전투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단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조합되어 한국군 사단은 전장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였다. 야전훈련사령부를 통해 발전된 한국군 사단의 전투 역량이 궁극적으로 한국군 증강 계획의 실현을 결정짓는데 중요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야전훈련사령부는 한국군 사단의 전투효율성 향상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한국군 증강 계획의 실행을 결정하는데 기여하였다. 1951년 8월에 창설한 야전훈련사령부는 모든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9주의 훈련 과정은 회복기(1주)와 훈련기(8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952년 7월까지 진행된 훈련에서 9개 사단이

58) "Expansion of ROK Army, 1, Nov, 1952", RG 319 :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6, Top Secret Correspondence, compiled 1948-1952, Entry UD 2A, 091 Korea 1951-1952.

최소 2주에서 9주의 훈련기간을 거쳤다. 그 결과 한국군 사단들은 회복기를 통해 병력 및 장비를 거의 완전한 수준까지 보충받았으며, 훈련기를 통해 자신들의 전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단들이 전장에 복귀하였으며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였다.

야전훈련사령부의 훈련을 통과한 한국군 사단들은 1952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공산군의 거센 공세를 극복하여 전장에서 자신들의 전투능력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미국 정부, 미 육군부, 유엔군 사령부, 미 8군사령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군 사단이 미국 사단을 대신하여 한반도를 지켜낼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결국 이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는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안에 대한 시행을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야전훈련사령부를 통해 조형된 한국군 사단의 전투 능력이 한국군 증강을 현실화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야전훈련사령부는 한국군의 발전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이 연구는 군사사적인 면에서 야전훈련사령부를 재발견했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쟁 중 야전훈련사령부가 제공했던 회복기와 훈련기로 구성된 한국군 사단 훈련 프로그램은 한국군 사단의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분명히 기여하였다. 그리고 야전훈련사령부를 통해 향상된 한국군 사단의 전투 능력은 한국군 증강 계획의 시행을 결정짓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야전훈련사령부를 단순히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켰던 훈련기관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한국군 증강 계획의 실행을 결정하게 한 시발점으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원고투고일 : 2014. 4. 1, 심사수정일 : 2014. 5. 14, 게재확정일 : 2014. 5. 20)

주제어 : 야전훈련사령부, 유엔군, 주한미군사고문단, 회복기, 훈련기, 밴플리트

<ABSTRACT>

The study on the FTC(Field Training Commands) during the Korean War

Yoo, seong-jong

This study deal with the Field Training Commands (FTC) which was charged with training the Korean Divisions during the Korean War. Just after breaking out the Korean War, U.S. took the lead in the military operation. As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PLA) intervened militarily in the Korean War in October 1950, U.S. had to change its war strategy from taking the victory to having negotiations.

Thus UN Forces tried to keeping the Line of Contact. For achieving this, the Korean Divisions were very important factors because they were charged with large parts of the Line of Contact. In August 1951, Van Fleet, the commander of EUSA (Eighth of United States Army) at that time,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FTC. It offered special training programs for the Korean divisions. Almost Korean divisions were trained in the FTC, and then their performances and combat skills were highly improved.

Until now, there has rarely been the study on the FTC. For researching the FTC in depth, the FTC was chosen the theme of thesis, and methods of the Study were the literature review about historical material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below. First, FTC's training programs were considerably effective for the Korean divisions. Second, the Improving Korean divisions' military performances was essential decision factors for the strengthening of Korean Army. Finally, this study has an important military significance for rethinking of the FTC.

Key Words : Field Training Commands, FTC, Korean Divisions, Van Fleet